

#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의 본질은 모든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칙과 표준들의 체계를 탐구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을: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 규칙과 인식론적 방법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병: 윤리학의 본질은 개인 생활과 사회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도덕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 ① 갑은 도덕적 진술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윤리학이 보편적 도덕원리와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문화 현상과 관행을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병과 달리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도덕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본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표현은 아니다.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발달된 현대 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으로 보게 한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 ① 기술을 중립적으로 볼 때 인간은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② 기술은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다.
- ③ 기술은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 ④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있다.
- ⑤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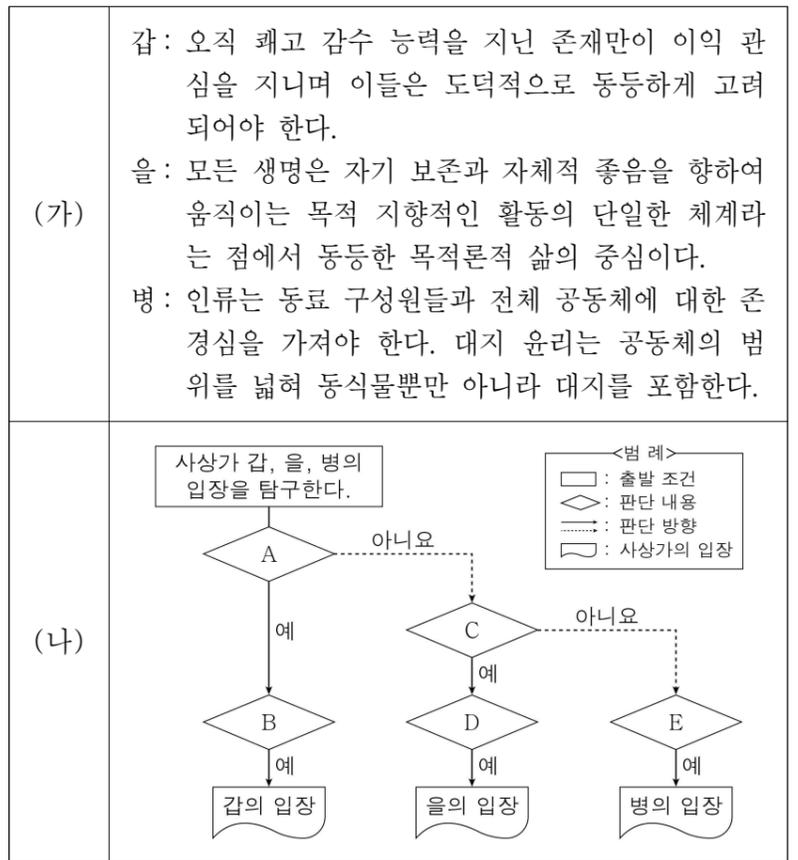
3.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본래 자유로우며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 세워졌다. 통치권은 오직 공공선을 목적으로 위탁된 것이며 자유인은 자신의 동의를 통해서만 복종의 의무를 진다.  
 을: 인간은 모두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정의롭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불복종은 오직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침해될 때 행사될 수 있다.

< 보 기 >  
 ㄱ. 갑: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정부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ㄴ. 을: 정치 체제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표가 아니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 유지와 강화에 기여한다.  
 ㄹ. 갑, 을: 복종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E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인간이 인간 이외의 종(種)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B: 유정(有情)적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 ③ C: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갖는가?
- ④ D: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는 생명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 ⑤ E: 인간은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5.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지만 형식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둘 다 이해 타산적 관심에서 벗어나고 자유의 체험을 내포하며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한다.  
 을: 예술은 영혼의 눈에만 보이는 '아름다움의 실재'를 모방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관조함으로써 영혼이 아름다움에 동화되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 보 기 >  
 ㄱ. 갑: 미는 도덕성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갑: 미와 도덕적 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ㄷ. 을: 미의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재이다.  
 ㄹ. 갑, 을: 예술은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삶과 죽음은 운명이며, 낮과 밤이 변함없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이 나에게 몸[形]을 이루어주고 나를 삶으로써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써 쉬게 한다.  
 을: 사람들은 스스로 지은 업(業)으로 인해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므로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러므로 번뇌(煩惱)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 보 기 >  
 가. 갑: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필연적인 변화 과정이다.  
 나. 을: 인간은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 을: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라. 갑, 을: 인간은 죽은 뒤에야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정초된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형벌과 위법 행위 간의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병: 중신 노역형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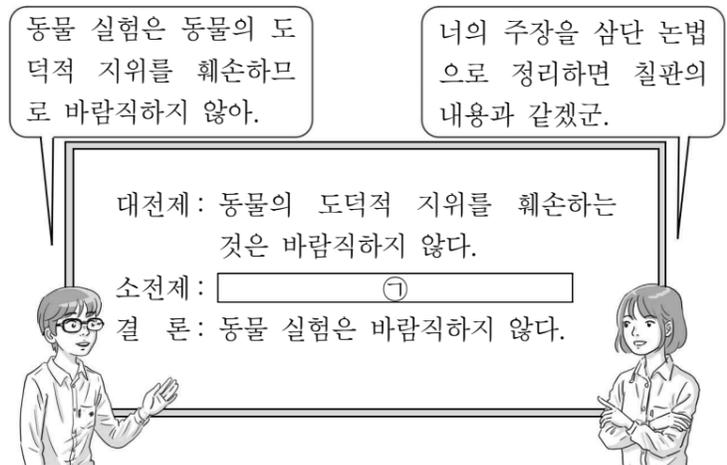
- ① 갑은 형벌의 정도가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사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최선의 형벌은 아니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살인자라도 사형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은 을, 병과 달리 사형은 동해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옷을 만드는 이유는 바람과 추위를 막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몸을 가린다는 것은 꾸미기보다는 문채(文彩)를 만들어 귀천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유익함이 없다.  
 을: 옷을 만드는 이유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여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화려하지만 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옷은 없어야 한다.

- ① 갑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의복을 고를 때 유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의복을 선택할 때 장식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의복이 몸을 보호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의복을 신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본다.

9.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없다.
- ② 동물 실험은 엄격하게 선발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 ③ 동물만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④ 이성적 능력이 결여된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 ⑤ 자의식을 지닌 삶의 주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10.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창조는 성스러운 것[聖]이 세계로 침투하는 신의 작업이다.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성이 속된 것[俗]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을: 설계된 듯한 모습을 한 생물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진화한 것일 뿐이다. 우주 만물의 설계자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 ① 갑: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다.
- ② 갑: 종교적 인간은 속의 시간과 성의 시간을 모두 체험한다.
- ③ 을: 생명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나타난다.
- ④ 을: 우주 만물의 시원으로서의 창조적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자연적인 존재와 초자연적인 존재는 양립할 수 없다.

#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1. (가) 사상의 입장에서 제시할 (나)의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사람이 어질지[仁] 않으면 예(禮)는 해서 무엇 하며, 악(樂)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부모를 섬기고, 후세를 잇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다.</li> <li>○ ㉡은/는 동기간(同氣間)으로 서로 화목함으로써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li> </ul>

— < 보 기 > —

ㄱ. ㉠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ㄴ. ㉠은 상호 공경하면서도 분별[別]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ㄷ. ㉡은 차이를 인정하고 위계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ㄹ. ㉠, ㉡은 권면(勸勉)과 신의에 힘써야 하는 관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강제력은 불의를 지속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통해서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정의 실현은 합리성을 계발하고 도덕적 선의지를 확충하는 방법들 통해서만 가능하다.  
 을: 도덕적 요인들은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 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 ① 갑: 개인의 도덕적 양심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없다.  
 ② 갑: 합리적 이성이 강제력과 결합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③ 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비합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을: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⑤ 갑, 을: 개인과 집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녀가 상대의 성(性)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향유로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자신의 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으로 인간에게 고유한 인격체의 권리와 모순된다. 어느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 의해 사물처럼 사용될 수 있고, 다시 후자의 인격체가 전자의 인격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결혼이다. 이것이 순수 이성의 법칙에 따른 필연이고 이럴 경우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인격성을 회복할 수 있다.

- ① 남성과 여성이 사랑한다면 두 사람의 성적 관계는 정당화된다.  
 ② 부부는 서로 성을 향유하면서도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③ 자발적 동의는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④ 부부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⑤ 성적 욕구는 인격성을 저하시키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줄 때 타고난 자질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p> <p>을: 차등의 원칙은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할지를 규정한다. 분배의 결과를 규제하는 원칙은 취득·이전의 원칙에 위배된다.</p>
(나)	

— < 보 기 > —

ㄱ. A: 재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ㄴ. B: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ㄷ. B: 정당한 소유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ㄹ. C: 재분배를 강요하는 차등의 원칙은 소유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국가 성원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을 맡아야 하며 수호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국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된다.

을: 공산 사회가 되면 분업에 예측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그럴 때 개인들의 전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학생 답안

갑은 ㉠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 공익 실현을 위해 통치자의 재산 공유가 요구된다고 본다. 을은 ㉢ 사회적 분업이 인간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고 보며, ㉣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노동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